

하나님의 말씀

삼위 일체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1472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3
7659 창조물은 실재하는 신성의 증거이다.....	5
하나님의 본성.....	7
2288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	7
2539 사랑, 지혜, 의지와 능력. 하나님의 성품.....	8
7860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세.....	8
6641 하나님의 성품.....	9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12
7511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 성육신.....	12
7731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13
8263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	15
2452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16
3465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17
3621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19
7001 그리스도의 문제. 삼위 일체.....	20
8250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21
삼위 일체.....	23
0662 영원한 삼위 일체.....	23
0930 삼위일체의 신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24
2056 삼위 일체.....	25
4484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27
5389 삼위 일체가 오류가 됨.....	29
7117 삼위일체의 문제.....	30
8674 성령님을 부르는 일.....	32
삶의 목표: 하나님과 연합.....	34
5577 인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제자.....	34
1138 하나님과의 연합.....	35
2129 기도 -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 중요한 과정.....	36
8973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든다.....	37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모든 생각은 위로 인도할 것이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위로 향하려는 의지가 활성화된 것이고, 의지가 먼저 역사했어야만 하고, 생각이 인간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모든 권세에게 향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파악하기 위해 의지를 활성화 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에게 질문에 설명해줄 수 있는 영역으로 자신의 영을 보내야만 한다. 그러나 설명 받으려는 갈망은 다르게 강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일에 가장 다양한 성공이 있게 되는 이유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항상 같지 않은 이유이다.

많은 사람은 영원한 신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영원한 신성을 헤아려보려고 노력하고, 그가 이 문제에 관한 완전한 해명을 얻는 일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 없다. 그는 설명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갈망하는 생각이 빛의 존재에 의해 성취되기 때문이다. 빛의 존재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지식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 사람이 진리를 더 많이 구할수록, 그에게 더 자세하게 진리가 제공되고, 하늘의 아버지는 빛을 갈망하는 이 땅의 자신의 자녀들에게 설명해주지 않고 놔두지 않는다.

영원한 신성의 최고의 온전함을 깨닫기 위해, 이 땅의 존재가 도달하지 못한 가장 크게 성장한 상태가 필요하다. 그러나 빛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영적 상태가 더 성숙해지도록, 이로써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도록, 깨달음을 준다. 그러므로 그는 서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에게 영원한 신성의 사역과 통치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지식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깨어나게 한다. 사랑은 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에게 항상 영원한 신성에 관한 더 깊고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어느 정도 그에게 모든 생명의 기원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구하는 탐구가 성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받을 수 있기 위해 진리를 갈망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자신에게 도달하는 모든 음성에 귀를 열고, 그가 영적인 면에서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에게 향하기를 원한다. 그는 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사람들이 이 빛에 더 가까워지도록 인도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적인 존재에 관한 어떤 질문도 답하지 않고 남겨 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의 존재들에게 부족한 것은 빛과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로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빛을 전파하기를 원한다. 그는 단지 사람 안에 바로 이 빛을 향한 갈망이 깨어나는 일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빛이 모든 충만함으로 그에게 발산된다. 그 자신이 진리를 갈망하는 이 땅의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에게 설명을 한다. 그는 자신을 깨닫게 한다. 그는 연약한 이 땅의 존재에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하면서, 다시 말해 이 땅의 존재의 영이 가장 깊은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을 열게 하면서, 연약한 이 땅의 존재를 돕는다. 그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힘을 준다. 그는 이를 통해 갈망이 커지게 한다. 사람은 이

땅의 기간을 위해 알맞은 정도에 따라 신적인 존재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연구하기를 원한다. 그는 사람들이 순수한 진리를 갈망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는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를 전해준다.

아멘

창조물은 실재하는 신성의 증거이다.

B.D. No. 7659

1960년 7월 29일

너희가 보는 너희 주변의 모든 창조물들은 영적인 존재들에 완성을 돕는다. 어떠한 것도 목적과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 비록 너희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이 자신에게 정해진 바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한 모든 곳에서 그의 지혜가 역사한다. 지혜와 사랑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의 전능한 권세가 실행에 옮겼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나타내고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권세를 표현한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수 있게 창조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창조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증명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영의 눈이 먼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의 기적과 같은 작품에 눈을 뜨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자연이 그들에게 어떤 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창조의 작품을 깊이 생각하고 그의 생성과 그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면, 제멋대로가 아닌 영원한 신성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창조물은 하나님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창조물은 질서의 법칙을 세운 분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질서의 법칙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창조물은 모든 창조의 작품의 목적과 정함 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정해진 목적을 부여한 지혜로운 생각하는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존하는 신성이 사람들에게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는지에 관해 해명을 얻으려는 의지가 사람에게 있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이 올바르게 생각하길 원해야만 한다. 그는 창조물을 통한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가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는 체험을 하길 원해야만 한다.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얻길 원하면서 생각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물은 진실로 단지 진지하게 설명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논쟁의 질문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진지한 소원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으로 답변을 받는데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자연의 기적의 작품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마음대로 생성된 작품이 아니고 질서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창조물은 창조물의 결과가 목적에 합당하고 정해진 법칙에 따르고 항상 지혜로운 법칙을 세운자를 증거하는 동안에는 의지의 인도를 받는 능력의 나타남이기 때문이다.

질문하는 사람은 답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자신에게 답하는 사람은 오류를 확실하게 범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하지 않는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에게 절대로 진리를 전해주기 원치 않는 자에 의해 잘못 인도받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향력 아래 있다.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향력은 항상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만약에 그가 진지한 의지로 스스로 진리를 체험하려고 하면, 모든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진리를 향한 갈망이 그의 생각의 과정이 인도받게 해서 그가 창조물을 통해 자연의 기적적인 작품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깨닫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게 돕는 아주 많은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만약에 그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깨달음의 빛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 모든 창조의 작품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설교해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믿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는 이 믿음을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

B.D. No. 2288

1942년 4월 3일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심장으로 는 이를 이해하기가 더 쉽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사랑으로 충만해야만 하기 때문이고, 사랑이 영원한 신성의 본질이고,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면, 그에게 더 이상 이상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무 것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영원한 신성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왜냐면 그의 영이 그를 지식으로 인도하고, 그의 영이 그에게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의 영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힘이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힘이 있고, 그는 어디에나 계시고, 가장 강력한 사랑이다. 그는 모든 장점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최고로 온전한 존재이고, 그에게는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해 그는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그의 시작과 그의 끝이 어디에도 없다. 그가 원하는 일은 일어난다. 그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 알고, 그의 영은 온 우주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항상 어디서나 자신을 나타낸다. 사랑과, 지혜와 힘이 원래의 시작이다. 사랑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 넣었고, 지혜가 모든 창조물에게 그의 과제를 부여했고, 하나님의 힘이 사랑이 생성되게 한 것이 존재하는 일을 보장한다.

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공허한 개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힘이 없다면, 일을 수행하기 위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혜가 창조시에 모든 것에 목적과 목표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온전함에 대해 전혀 생각할 수 없을 것이고, 힘이 전혀 온전한 것을 생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로 온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생성된 모든 것은 또한 온전한 것이 될 것이고, 특정한 영적인 질서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지극히 온전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를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의 법칙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인간은 초자연적인 법칙을 받아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신의 형체를 떠나 영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세상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혼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멘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큰 사랑으로 창조했다. 하나님은 너희가 눈으로 보는 것을 가장 지혜로운 목적으로 생성이 되게 했고, 이는 그의 의지가 역사한 것이고, 그의 능력이 창조물을 생성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의지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과 지혜와 의지와 능력이 모든 피조물들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의 성품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지혜이고, 하나님은 의지이며 능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그의 창조주의 영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은, 한 목적을 성취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다. 창조물은 사랑의 역사여야만 하고, 그러므로 행복하게 해주는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

창조된 존재는 자신 안에 의지와 능력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창조된 존재는 행복하게 되려는 목표를 향해 추구하는 어떠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창조는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이 이러한 행복한 상태를 존재들에게 베풀어 주기 원한다. 왜냐하면 존재들이 한때 이런 상태를 잃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사랑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지와 능력이 역사하게 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랑이 충만한 돌봄으로, 존재들이 그 안에서 거하는 장소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수단인 창조물을 형성했다.

아멘

내 사랑과 지혜가 역사하는 곳에 내 권세가 역사할 수 있는 곳에 내 축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단지 너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완성에 도달하게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노력을 하는 나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인간으로써 내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는 사람들을 축복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 깊은 어두움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영이 어두운 가운데 산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잘못 된 인도를 받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방식은 내 뜻에 합당하지 않다. 만약에 그들을 밤의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빛을 그들에게 비추지 않으면, 그들이 완성에 도달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 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면, 너희는 선명하게 완성으로 인도하는 길을 깨닫는다. 만약에 너희가 자유의지로 단지 너희 안에 있는 빛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면, 너희는 이 길을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불씨는 빛이고 너희가 단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빛의 비추임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에는 제한이 없다. 내 지혜는 너희의 상태를 깨닫는다. 너희가 나에게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면, 내 권세는 이런 상태를 진실로 개선시킬 수 있고 개선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말을 이 땅에 전한다. 나는 스스로 자신을 형성하여 그가 내 음성을 깨달을 수 있게 하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너희의 혼이 성장하기 위한 가장 큰 은혜의 수단인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한 사람을 축복할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내 성품이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이 내 피조물인 너희를 향해 있고 너희를 돕기 원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면, 이런 내 사랑은 너희가 오류 가운데 살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지혜는 너희에게 진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그러나 너희가 진리를 통해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내 사랑과 지혜가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내 권세가 자신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느냐? 너희가 단지 진지하게 내 성품을 상상해보려고 하면, 너희가 먼저 내 너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믿으면, 너희는 내 사랑이 너희에게 거부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를 필요로 하는 너희에게 진리가 제공되지 않을 까 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면 이런 일은 단지 너희의 완성을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오류와 혼돈과 너희가 퇴보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 내 지혜의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적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나에게 복종하면, 너희가 단지 말의 뜻을 따르기 원하면, 너희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면, 대적할 수 없는 내 대적자를 물리칠 권세가 진실로 나에게 있다.

단지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자신의 보호와 자신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놔두지 않음을 믿으라. 내 대적자가 너희를 공격하면, 그가 너희에게 행하는 내 역사를 막는다면, 그를 물리치기 위한 내 권세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믿지 말라.

사랑과 지혜와 권세가 내 성품이다. 사랑은 너희를 보호한다. 지혜는 모든 수단을 안다. 권세는 사랑과 지혜가 결정한 것을 수행한다. 내 성품은 항상 내가 높은 곳으로부터 너희에게 전하는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내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내 말씀으로 나타난다.

왜냐면 내가 너희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축복에 빛에 도달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진실로 빛에 도달할 것이다. 그에게 진리가 전해질 것이다. 그는 올바른 길을 택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에 도달할 것이다.

단지 위로부터 오는 너희에게 비추기 원하는 빛에 자신을 열라. 너희에게 내 말이 들리면, 너희 심장을 닫지 말라. 왜냐면 너희가 생명에 도달하기 위해 내 사랑의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

B.D. No. 6641

1956년 9월 10일

너희 사람들은 절대로 내 성품을 남김없이 헤아려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첫째로 너희의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창조한 모든 존재를 헤아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하나님의 말씀 - 9/38

릴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영원으로부터 근원의 중심이고 너희와 모든 피조물들이 이런 근원의 중심에서 발산되어 나왔고 무한하게 작은 창조물들을 생성되게 한 근원의 중심을 너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이런 설명이 너희가 내 성품을 헤아려보려는 소원에 비해 단지 약한 비유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이런 설명은 항상 진리와 일치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항상 단지 비유를 통해 깨달음을 줄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이 나 자신을 의인화하는 동안에는 즉 하나님이 어떤 제한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는 동안에는 너희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일은 어렵다. 너희가 나를 유일하게 힘으로 생각하면, 너희는 아직 잘못 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무한의 세계 전체를 채우는 어떤 존재를 생각하거나 또는 무한 가운데 살아 있고 자신을 의식하고 생각할 능력이 있고 모든 정도를 넘어서는 힘으로 충만한 존재를 생각한다면, 너희는 진리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 나는 한계를 모르는 채우는 영이고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또한 가장 작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창조물 안에 임재한다. 나 자체가 힘이고 빛이고 최고로 완전한 사랑이요 지혜요 힘이다.

어느 누구도 이런 영적인 존재를 상상할 수 없다. 왜냐면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창조주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들이 단지 하나님의 힘의 작은 불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피조물의 축복은 그들의 창조주인 나와 연결을 이루는 일이고 그들이 나와 하나인 것을 의식하면서 살고 역사하고 내 사랑을 받는 것을 알고 끊임없는 사랑의 힘을 받는 일이다. 이런 축복은 전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인 내가 볼 수 있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일이고 내가 형체를 입은 존재를 위해 마찬가지로 형체를 입어 그들이 이제 자신들과 같은 어떤 존재로서 나와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일이다. 왜냐면 존재를 충만하게 채우는 사랑의 힘이 그들 안에 소통하려는 나와 긴밀한 교제를 하는 가운데 나와 연결을 이루려는 갈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내 피조물들은 모든 것을 채우는 영인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내 피조물들 자신과 같은 형체 안에 거할 수 있고 이런 형체가 영화 된 형체가 되어 제한이 없이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 위해 세상의 물질적인 형체인 동안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충만함으로 형체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로써 이제 나를 보고 견딜 수 있게 된 내 피조물들이 볼 수 있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머물렀다.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충만하게 받는 일을 체험할 수 있고 항상 더 높은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피조물이 내가 존재를 생명으로 부를 때 모든 존재에게 준 목표대로 그가 신적인 존재가 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이런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일을 이룬 최초의 존재였고 원래 창조 된 영들이 나를 떠나 타락함으로써 필요하게 된 사명을 동시에 완수했다. 그러나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사용하면, 즉 사랑이 인간의 몸을 가장 충만하게 채우면, 영원으로부터 사랑의 힘인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거해야만 한다.

사랑이 인간의 형체 안으로 육신을 입어야만 하고 이로써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를 해결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돼야만 한다. 영원한 신성인 내가 인간 예수 안에 거했다. 그러나 형체로서 나를 섬겨야 하고 따라서 절대로 이 형체를 잃지 않아야 하는 인간에게 내 본질적인 힘인 사랑과 지혜와 전능함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내가 인간 예수 안에 거했다. 왜냐면 내가 그 안에서 너희를 위해 볼 수 있는 신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가 이제 이런 형체 안에서 신성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존재들이 내 성품을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이고 이런 존재로 머문다. 왜냐면 항상 영원히 얻을 수 없게 보이는 존재를 추구하는 일과 원래의 권세이고 자신이 가장 높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이 또한 축복에 속하기 때문이다. 나는 십자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런 아주 큰 사랑을 보여주었다. 예수는 실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받았다. 왜냐면 단지 나 자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내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구속 역사를 이뤘고 이제 이런 공허의 역사 없이는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피조물들에게 주었다.

아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 성육신.

B.D. No. 7511

1960년 1월 30일

가르치는 사람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전해진 내 말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에게 성육신의 문제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이를 이해하게 될지는 그의 혼의 성장 정도에 달려 있고 비로소 그가 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의 사랑의 정도에 달려있다. 왜냐면 그가 이 문제에 파고 들어가 영접하는 지식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의 혼의 자세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할 때 그 안에 내 모두를 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기 위해 혼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만 한다. 혼을 비추고 밝혀주는 밝은 빛과 같은 사랑이 혼이 준비해야 하는 일을 이룬다.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게 배우는 사람도 영의 깨어남이 필요하다.

왜냐면 아직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전적으로 봉사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에게 진리에 합당하게 설명할 지라도 그는 절대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의 영이 아직도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단지 소수만이 성육신의 문제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육신을 내가 인간 예수에게 그가 특별하게 역사할 수 있게 단지 능력을 부여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단지 높은 도덕적 목표를 가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고 그러나 영원한 신성이 인간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므로 믿을 만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부분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두개의 개념으로 만든다. 이로써 세 존재로 된 신성이라는 잘못 된 가르침이 생겨났고 쉽게 이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되었다. 왜냐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영의 깨어남이 필요하고 영이 깨어나는 일은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깨닫고 인정하기 위해 이로써 영원한 생명에 도달한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 아주 필요하다. 왜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전에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내 순수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제 내 이름으로 전해진 것의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리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랑이 단지 약하게 불타오르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오류들이 대변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순수한 진리가 전해질지라도 아주 많은 이해를 받지 못한다. 사랑의 화염이 사람의 심장을 밝게 해주기 전에는 진리가 자리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잘못 된 방식으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잘못 된 가르침처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없다. 만약에 그가 깨어난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사랑의 삶을 통해 자신의 영의 음성을 자신 안에서 들을 수 있으면, 이제 그의 생각이 열리고 올바르게 인도받게 되어 그가 구별하는 일이 쉬웠을 것이다. 항상 결정적인 것은 사랑이다. 항상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모든 연관 관계를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는 그는 영적으로 봉사할 것이다. 그에게 가장 현명한 가르침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전에 올바른 사랑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라. 진리는 선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내면으로부터 너희에게 가장 밝은 빛을 주는 너희가 이해하게 될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지식을 받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들어설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도달할 것이다. 나는 그 안에서 육신을 입었고 그를 인정하는 것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인정은 너희를 언젠가 축복으로 너희 아버지 집의 나에게 인도할 것이다.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

B.D. No. 7731

1960년 10월 27일

너희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된 일이 가장 큰 비밀이고 비밀로 남을 것이고 비록 너희에게 이를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설명할지라도 너희에게 있는 비밀로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성품을 전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항상 인격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존재하는 하나님을 어떤 제한된 존재로 상상하고 이 제한된 존재를 이제 두 존재 자체가 하나가 된 인간 예수 안에 대입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내 성품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고 내 성품은 모든 것을 채우고 포함하는 제한을 알지 못하는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능력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에게 내 성품을 소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제한이 있기 때문이고 너희가 아직 모든 제한이 없는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단지 제한된 크기로 채워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그가 온전하기 때문에 즉 그가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충만한 힘을 자신 안에 담았다.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흘러 들어가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그는 전적으로 이 능력으로 충만했다. 그러므로 내 원래의 성품이 신적인 사랑의 힘이 그 안에 거했다. (1960년 10월 27

일)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가 그의 겉형체를 이런 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내 힘에 의해 소멸되지 않고 인간 예수의 겉형체 안에 이런 힘을 전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을 가능하게 만든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 예수의 형체 안에서 자신을 단지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왜냐면 영원한 힘의 원천으로써 나는 어떤 존재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존재가 거대한 내 사랑의 불 바다를 한번 볼 수 있게 되면, 존재는 이를 절대로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나에게 제한을 가해야만 했고 나는 너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만 했고 이 형체를 이제 전적으로 충만하게 채웠다. 그러나 형체는 그럴지라도 영원으로부터 나 자신의 상태인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머물렀다. 형체는 나를 보기를 갈망하는 내 피조물들 때문에 거할 수 있는 장소로써 가장 높고 온전한 존재를 섬겼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내 성품을 영원히 헤아려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성품은 모든 창조된 존재들인 나로부터 한때 생성되어 나온 모든 존재에게 헤아릴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신성을 인격화하려는 일은 잘못이다. 왜냐면 나는 제한이 없는 영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채우는 능력이고 모든 무한 가운데로 발산되는 힘이며 모든 존재들과 모든 창조물들을 유지하고 그들이 유지되게 보장하는 힘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신의 의지를 활용하는 존재이고 최고로 온전한 가운데 생각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항상 사랑과 지혜가 생각을 정하고 권능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기는 존재이다.

한때 나에게 의해 창조된 존재가 나를 보기를 갈망했던 일이 그들이 나로부터 타락한 동기였다. 그러나 나는 모든 존재가 볼 수 있게 될 수 없었다. 왜냐면 그들에게 열리게 돼야만 했을 빛과 능력의 충만함 앞에 그들이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녀들의 소원을 성취시켜주기를 원했다. 나는 나를 그들에게 볼 수 있게 소개해주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나를 소개했다. 그러나 겉형체는 이 전에 모든 충만함으로 내 빛과 내 능력을 자신 안으로 영접할 수 있기 위해 전적으로 영화돼야만 했고 겉형체도 영원한 내 원래의 존재와 같은 영적인 입자가 돼야만 했다. 이로써 나 자신이 이 형체를 채울 때 형체가 소멸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형체에 더 이상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영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였다.

나는 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단지 인간으로써 너희 죄를 용서하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되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더 이상 인간으로 머물지 않았고 이 땅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고 그는 그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 전적으로 하나로 융합되었고 내 원래의 성품이 그 안에서 나타났다. 모든 것을 채우는 영원한 영이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형체를 입었다. 이로써 나를 보고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고 나를 대면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내 모든 자녀들은 나는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멘

나는 내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그는 내 영원한 원래의 사랑에서 생성된 존재이다. 내가 원래 창조한 영들의 큰 무리가 나를 떠나 타락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사랑을 나에게 드렸고 비록 그가 나를 볼 수 없을지라도 나를 자신의 영원한 아버지로 깨달았다. 그는 일회적인 역사를 통해 나를 떠나 타락한 자녀들을 나에게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면서 그의 아주 큰 사랑을 나에게 증명하기를 원했다. 그의 사랑이 이런 역사를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 역사를 허용했고 내가 그가 이 땅으로 임하는 일에 동의했다. 그는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되었던 빛의 나라를 떠나 최초의 타락한 존재였고 내 상극이 되어 나를 대적하는 영인 루시퍼의 나라인 어두운 영역으로 임했다.

나는 내 아들을 땅으로 보냈다. 그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한 곁형체로 섬기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왜냐면 나는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돌아가는 길이 끊어졌고 그들은 끝없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 나와 가장 멀리 떨어진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야만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는 내 피조물이고 내 사랑과 권세와 첫번째로 창조된 존재인 루시퍼의 의지를 통해 생성된 존재들이다. 루시퍼는 원래 초기에 내 힘을 사용하여 피조물들을 생성되게 하는 일에서 가장 큰 행복을 얻었다.

내가 내 형상으로 생성되게 한 원래 영이 타락하는 일을 실제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막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사랑과 지혜로 타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권을 최종 목표로 전적으로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과정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의지로 이런 목표를 이뤄야만 했다. 그러나 타락한 존재들의 의지는 내 대적자의 영인 루시퍼의 영향으로 아주 약해져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가장 깊은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그들에게 준 도움은 의무단계로서 내 뜻대로 물질적인 창조물을 거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그런 후에도 존재들에게 전혀 힘이 없었다. 왜냐면 그들이 한때 내 사랑의 힘을 거부했고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단지 사랑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내 아주 큰 긍휼로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길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그들 안에 사랑의 불씨를 넣어 주었다. 그럴지라도 엄청나게 큰 원죄의 죄짐이 남아 있었다.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에게 대적한 죄짐이 타락한 원래의 영들 각자에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죄짐은 신적인 공의 법에 따라 해결돼야만 했고 이런 타락한 존재들이 스스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속죄가 이뤄져야만 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머물렀던 원래의 영이 땅에서 구속 역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왜냐면 그의 나를 향한 사랑과 타락한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아주 강해서 이런 구속 역사가 요구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가 자원하여 짊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인간으로서 이 땅의 과정을 가기를 원했고 인간의 곁형체인 예수 안에 육신을 입고 최고의 사랑이 필요한 고난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 이 길이 또한 영원한 신성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 왜냐면 나는 단지 사랑이 있는 곳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사랑으로 나 자신과 연결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나는 자신을 전적으로 사랑으로 형성한 그릇을 내가 거할 그릇으로 택했다.

예수의 혼은 실제 나를 향한 사랑을 이 땅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탄생했을 때 그의 혼이 들 어선 영역은 루시퍼의 나라였고 그의 혼은 루시퍼의 공격을 받았고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루 시퍼의 일부였다. 그가 인간으로서 타락한 형제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또 한 내 아들로써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루시퍼의 공격에 자신을 방어하고 떨쳐내기 위해 사용할 수 없었고 그는 자신의 이웃들처럼 투쟁해야만 했고 사랑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공격 하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돼야만 했다. 그러나 악한 영이 그를 방해하려고 시도했고 그의 인간 의 겉형체가 모든 유혹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고 이로써 자신 안의 사랑이 점점 더 강하게 되어 발산되어 그가 또한 자신의 육체의 겉형체도 영화시킬 때까지 그의 혼이 이에 대항해서 싸워야만 했고 이로써 그의 사랑의 빛은 항상 더욱 밝게 빛나고 대적자가 그가 행하는 일을 막기 원하는 일을 행할 때 까지 그의 혼이 이에 대항해서 싸워야만 했다. 대적자가 막기 원하는 일은 그가 사랑으로 초인적인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 그가 내 원수 에게 사랑으로 대항하고 사랑으로 그를 물리치는 일이었고 그가 내 공의를 만족시키고 대적 자가 더 이상 포로로 가둘 수 없는 혼들을 위해 구매 가격을 지불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를 충만하게 채운 사랑이 긍휼의 역사를 완성했다. 이 사랑은 바로 나 자신이었 다. 그러나 내 아들이 이런 어두움을 거쳐야만 했고 루시퍼의 나라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므 로 그는 타락하지 않은 원래의 영으로서 소유했던 자신의 빛과 힘을 뒤에 남겨 뒀어야만 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연약함으로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왜냐면 그 가 사람들에게 나에게 돌아가는 길인 사랑과 고난의 길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다. 이 길은 인간 예수가 진실로 자신의 이웃보다 앞서 갔던 길이었고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었다. 왜냐 면 그의 혼에 원죄가 없었고 그의 사랑이 그에게 그의 인간의 육체를 영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이 이 땅의 과정을 갔다. 왜냐면 사랑에 저항 하는 일이 단지 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인간의 심장 안에 내 신적인 사랑의 불씨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이 사랑에 불을 붙이고 최고의 화염으로 타오르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 들에게 전혀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면 단지 의지의 연약함이 사랑을 행하는 일 을 막을 수 있고 너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런 일이 그가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얻은 은혜 중 하나이기 때문 이다. 너희 사람들은 이런 구속 사역의 은혜를 활용해야만 한다. 이로써 그의 긍휼의 역사가 너희에게 헛되지 않게 해야 하고 너희가 예수 안의 나 자신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죄 짐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의 겉형체 안에 거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B.D. No. 2452

1942년 8월 20일

예수님이 하나님인지에 대한 질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논쟁의 대상이 되는 질문이다. 단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의 신성을 설명해줄 수 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은 지혜롭고 전능하고 사

량이 충만한 신성이 존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성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 즉 자신의 영을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에 의해 생성된 모든 존재들에게 발산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창조주와 그의 창조물 사이에 절대로 전혀 끝날 수 없는 연결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또한 항상 신성이 항상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한 인간의 걸형체 안에 모든 충만함으로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로써 이 사람 자신의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정도로, 신적인 것을 자신 안에 가질 수 있고, 이제 그의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걸은 사랑의 길을 걷지 않는 한, 그는 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지혜는 사랑을 통해 나오기 때문이다.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이를 즉시 파악하고, 그에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힘인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 발산의 흐름의 영역 안에 있고, 따라서 그가 또한 사랑을 행하는 진정한 삶의 결과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예수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산의 영역 안에 거했다.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의해 붙잡힘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충만하게 되었고, 강한 의지로 충만했다. 그러나 사랑과 영과 힘과 의지는 영원한 신성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또한 하나님과 같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예수 자신이 신적인 존재였다. 그는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로 간주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영원으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였다. 그는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속해 있음을 깨달았고, 아버지와 완전하게 연합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사랑의 삶을 통해 이미 이 땅에서 연합을 이루었다.

아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B.D. No. 3465

1945년 3월 31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는 이 말을 모든 것을 창조한 영원한 창조력인 사랑이 내 안에 거했고,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아버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똑 같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야만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서 활동했던 사랑의 힘을 증명하기를 원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 힘이 모든 것을 창조한 원초적인 힘임을 분명하게 해주기를 원했고, 이 힘은 자신이 사랑이 된 사람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기를 원했다. 왜냐면 영원한 사랑인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으로 형성한 모든 존재와 혼인하여 이로써 그와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초적인 힘이 힘의 흐름으로써 자신으로부터 생성된 존재와 다시 하나가 된다. 이로써 사랑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원초적인 힘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힘은 아버지와의 연합이 이룬 사람에게 모든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권세 있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권세와 힘을 사용할 수 있고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또한 이런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힘을 증명하는 데 활용한 것처럼 그는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나를 따르고 동시에 아버지와의 연합을 위해 추구하도록 자극해 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사랑의 힘을 보여주길 원했다.

그러나 인류는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냐면 그들에게 사랑이 부족함으로 그들의 영이 어두워졌고, 영의 어두움은 단지 사랑의 역사를 통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적으로 밝아지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돼야만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단지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밝음은 빛이다. 영적인 밝음은 사랑에서 태어난 지혜이다. 그러므로 빛과 힘은 하나이다. 아들이 없는 아버지를 생각할 수 없듯이 지혜와 사랑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사랑은 생산적이고 지혜는 사랑에서 발산된 빛으로써 더 이상 어떤 어두움도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존재를 채워야만 했다. 왜냐면 사랑의 힘이 곁형체인 나의 육체 안으로 충만하게 흘러 들어 갔기 때문이다. 이로써 곁형체인 육체가 기적을 이룰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사람들 자신이 사랑이 되어 자신 안에서 사랑의 힘을 느낄 수 있게 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들이 단지 사랑의 삶을 살고 그들 자신을 그들을 한때 생성되게 한 영원한 사랑인 원래의 힘과 같아지게 만든다면, 이를 통해 그들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였던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인 영원한 사랑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비추임을 받는 일은, 알고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지식과 권세를 받는 일은 비교할 수 없게 축복된 일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에게 대항하지 않는 모든 존재를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아버지와 전혀 분리된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일은 비교할 수 없게 축복된 일이다. 이런 축복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죽어야만 하는 인간은 그런 축복을 견딜 수 없다. 그럴지라도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일을 이룰 때, 아버지가 자신을 영의 나라의 아버지께로 데려 간다는 의식으로 이런 축복을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이 땅의 삶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힘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들은 나의 삶의 방식을 모범으로 삼기 위해, 내가 했던 것처럼 영원한 사랑인 아버지를 그들의 이 땅의 삶의 목표로 삼기 위해, 나의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미 이 땅에서 이뤄졌고, 이로 인한 효력을 사랑이 없음으로 빛이 없는, 즉 무지한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을 돕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밤의 어두움을 벗어나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기를 원했다. 나는 그들을 가르쳤고 사랑의 계명을 주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도 내 안에 계셨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였다. 인류는 이를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로 융합이 되었다. 왜냐면 사랑으로 변화된 모든 존재는 영원한 사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아멘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의 말씀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나의 말씀을 내 자신으로부터 나에게 의해 주어진 인간의 말로 보았다. 왜냐면 그들의 내면이 어두웠고, 그들이 인간 안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자신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이 들었다면,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본질과 사람들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증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지식을 그들에게 다시 주기를 원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힘을 알려주기를 원했다. 이로써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심장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증개자로서 사람들에게 임했다. 나를 통해 공개적으로 일하기 위해 영원한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머물렀다. 내가 말한 것과 내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형체였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깊은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견딜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영을 덮은 겉형체도 마차가지로 아버지의 것이다. 왜냐면 비록 내 안의 모든 것이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죽어야만 하는 겉형체였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영을 향해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겉형체는 겉형체 안에 있는 영을 통해 죽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인간 예수였다. 그러나 단지 겉형체에 따라 인간 예수였다. 왜냐면 내 안과 내 겉의 모든 것이 사랑을 통해 영화되었고, 영원으로부터 내가 분리될 수 없게 연결이 된 영원한 사랑과 하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영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존재 안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나의 육체의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냈고, 자신을 지혜와 사랑과 전능함으로 깨닫게 했다. 이 땅에서 행한 나의 역사가 나를 믿은 사람들에게, 단지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나의 의지가 수행할 수 있는 기적을 통해 신성을 증명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내 안의 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충만하게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죽어야만 하는 겉형체 사이에 더 이상 어떤 분리도 없었고, 겉형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이 겉형체를 완전히 채웠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겉형체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았고, 이런 일은 단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이 스스로 나를 통해 말했다. 영원한 말씀 자체인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신을 입었다. 왜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영원한 사랑의 신비에 대해, 영원한 아버지 영에 대해, 사람들과의 연결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대해 더 이상 알지 못했다. 말씀의 힘이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면, 말씀의 힘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이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자신 안으로 흡수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형성한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임했고, 사람들을 그들의 어둠에서 구원해야 할 지식을 그들에게 다시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나를 사람으로써 박해했다. 나는 사람들의 의지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게 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채우신 분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보았지만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았고, 눈이 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지혜와 전능함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 앞에서 모든 영광 가운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눈앞에서 영화 되어, 빛나는 빛으로 높은 곳으로, 그들의 영원한 고향인 나라로 떠오르는 하나님의 걸형체를 보았다.

아멘

그리스도의 문제. 삼위 일체.

B.D. No. 7001

1957년 12월 24일

모든 천사가 이 땅으로 임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 천사들은 주님이 임함으로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깊은 곳에 거하는 자신의 피조물들을 돕기 위해 임했기 때문이다. 빛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영적인 존재는 타락한 존재들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고 마찬가지로 가장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그들이 어떤 긍휼의 역사가 타락한 존재들을 위해 드러져야만 하는 지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이런 사랑이 더욱 뜨거워졌다.

천사들은 모든 타락한 존재들이 다시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메워야 할 깊은 간격을 알았다. 원래 창조된 천사의 영인 한 혼이 이 다리를 건설하려는 제안을 했고 이 혼은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그들이 한때 하나님께 지은 영적인 죄에 대해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께 보상하려는 제안을 했다.

이런 혼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깊은 곳에 거하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아주 커서 그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혼 안에 거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리고 빛의 혼이 아기 예수 안에서 이 땅으로 육신을 입었고 이로써 영원한 사랑 자신이 이 땅으로 임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걸형체는 이 땅에서 삶을 통해 자신을 다시 영화시켜야만 했고 혼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자신 안에서 빛나는 빛을 비춰야만 했다. 혼은 사랑의 삶을 통해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야만 했다. 이로써 인간 예수 안의 모든 것이 사랑이 되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은 영원한 신성인 사랑이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낸 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땅으로 임한 빛의 혼인 인간 예수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간의 걸형체를 형성했고 이런 일은 사랑이 없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된 일은 단지 사랑을 통해 인간 예수가 전적으로 신적인 존재가 된 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냈다. 이 말은 너희에게 인간 예수의 혼이 위로부터 왔고 최고로 높은 빛의 영이 이 땅의 사명을 위해 자신을 드렸다는 증거가 돼야만 하고 그러나 또한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이 땅의 사명을 수행했다는 말에 대한 증거가 돼야만 하고 그러나 사랑이 구속 역사를 완성했고 사랑이 타락한 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말에 대한 증거가 돼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아직 이해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아직 사랑으로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동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너희가 너희 안에 사랑이 타오르게 되어 너희의 영을 밝게 해줄 수 없는 동안에는 말을 통해 너희에게 이에 관해 설명해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 존재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지금까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소개받은 대로 이를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과 관련시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고 이런 하나 됨이 영의 힘을 발산한다. 왜냐면 영의 힘은 다시 그의 본질에 속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와 힘이고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하신 신성이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자신이 창조한 존재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자신을 보기를 갈망하는 모든 피조물을 향한 사랑으로 이 땅으로 임한 분을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고 칭송하고 바로 이 분이 모두에게 영원한 축복의 문을 열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B.D. No. 8250

1962년 8월 24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 더욱 어두워지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와 하나가 된 것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데에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에 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가르침 받은 것으로 인해 잘못 된 생각에 도달했다. 그러나 영원한 신성은 인격화 될 수 없음을 항상 또 다시 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신성을 모든 무한한 것을 채우고 있는 능력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고 이 능력은 제한이 없고 그러므로 형태로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나 능력은 한 형체를 전적으로 채울 수 있고 신적인 능력이 전적으로 비추어 채워지는 과정이 인간 예수에게서 일어났다.

예수는 사랑이 충만했고 사랑은 영원한 신성의 근원적인 성분이다. 이 사랑은 무한한 세계를 향해 쉬지 않고 비추고 있고 모든 것을 생성되게 했고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런 신적인 사랑의 힘이 인간의 형체 예수를 비추어 채웠고 사랑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원래의 속성이 인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예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성분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되었고 전적으로 영화 된 인간적인 걸형체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로

써 예수는 이제 상상해볼 수 있는 신성이 되었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두 인격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인간 예수는 이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모든 피조 된 존재들이 도달해야 할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목표에 도달했다. 왜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창조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완성은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스스로 도달해야만 한다. 인간 예수는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사역을 통해 인류의 죄를 용서했다. 왜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는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이고 이런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원래의 요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모든 충만함으로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그렇지라도 너희 사람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면, 이는 오류로 인도하는 개념이다. 왜냐면 영원한 하나님은 인격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영원한 하나님은 단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서 이제 역사하고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게 단지 예수 안에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한때 창조 된 존재들이 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 옆에 계신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존재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영화 된 형체에 비추어 채울 수 있는 사랑의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힘은 단지 신적인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지 자신을 영화시킨 존재만이 이 사랑의 힘을 볼 수 있다.

만약에 아버지 아들 성령을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으로 아들을 지혜로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나 또는 의지나 권세로 인정을 하면, 실제 유효하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지혜와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를 창조할 때 세운 목표가 이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처럼 되는 일이고 이런 목표에 도달하면, 이런 일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과 볼 수 있는 예수 안의 신성을 설명한다. 반면에 세가지 인격을 가진 신성은 전혀 올바르지 않고 진리에 합당한 설명을 해줄 수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개념을 만들어 내었고 이로써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었다. 왜냐면 세가지 서로 다른 신들을 불러서는 안 되고 단지 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안에서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단지 예수 안에서 경배받을 수 있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인정하기를 요구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한때 그를 인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동시에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아멘

영원한 삼위 일체....

B.D. No. 0662

1938년 11월 11일

너는 항상 네가 거하고 있는 위대한 은혜를 깨달으라. 너에게 부여된 일을 수행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자원하라. 주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영원한 삼위 일체를 네가 이해하게 해주는 계시를 받으라. 삼위일체는 인간을 괴롭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해하기가 매우 쉽다. 왜냐하면 단지 신성이 한 인격 안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신성은 자신 안에 지혜와 사랑과 의지의 권세가 하나가 된다. 삼위 일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항상 단지 아버지로서 사랑, 아들로서 지혜, 성령으로서 의지 자체를 의미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생성시켰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창조된 것을 올바른 자리에 두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했다. 의지의 영은 전체를 살아있게 하고 그의 존재를 보장한다.

이 문제를 향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해결책은 영원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전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원히 불멸한 신성 안에 통합이 된 것에서 단지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어 이로써 세 신성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했다.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생명력이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고 어떤 분리도 불가능하다는 것에서, 이로써 모든 것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에서 올바른 설명을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족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신성에게 인간적인 한계를 두려고 시도했고, 그들은 영 안에서 그들의 재량과 개념에 따라 영원한 신이 육신을 입어야 할 형체를 생각해냈다. 하나님을 인격화하는 모든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그의 빛과 능력이 총만함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를 한 인격 안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영원한 신성이 사람 안으로 육신을 입었다. 이로써 이제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할 수 있게 된 외적인 것으로 실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사랑과 지혜와 마찬가지로 의지와 전능함이 하나로 합쳐졌고, 다시는 절대로 서로 분리되지 않게 되었다.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무너졌다. 다시 말해 이제 사람들이 그들의 의지를 통해 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의지는 동시에 힘이 되었다. 이로써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원하는 이 땅의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행동으로 옮기고 이로써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이런 성령의 힘은 모든 것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신성의 발산이다. 그러나 절대로 인격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이성적으로 파악하길 원하는 일은 항상 단지 더 큰 오류에 빠지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사람들이 너무 인간적인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신성을 삼중의 형태로 상상하려고 한다면, 진리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심장을 들여다보고, 나를 섬기려는 너의 의지를 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능함에 대한 너의 혼의 믿음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너는 장애물이 너의 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항상 망설일 것이다. 제한이 없는 믿음이 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을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제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는 항상 모든 곳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너의 심장이 나에게 향할 때 나는 너의 가까이에 있게 될 것이고, 나의 자녀와의 연결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너로부터 멀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신뢰하는 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에게 할 말이 많고, 그러므로 나는 너의 심장이 나를 갈망한다면, 항상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을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라. 위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는 아직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절벽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오늘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관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생명력이 있게 되고, 빛이 밝고 선명하게 빛이 난다. 왜냐하면 신성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고 해결되지 않은 모든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신성이 그의 모든 충만함으로 한 존재 안에 머물 수 있는 한 가지를 이해할 수 없고, 그러나 순수한 영은 분리될 수 없고, 가장 합당하지 않은 존재가 그와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다시 말해 영원한 신성을 단지 분리될 수 없는 영으로 이해해야만 하고, 그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영이고, 단지 더 이상 이 영에 속한 느낌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이로써 스스로 분리했거나, 떠났다는 것을, 그럴지라도 이와 관계없이 항상 단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러므로 항상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원래의 성분임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이 신성과 거리를 두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을 그대로 유지한다. 신성과 연결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의 영은 소속감을 느낀다. 다시 말해 소속감을 의식한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아버지로 알려주었고, 이로써 인류의 출처로 알려주었고, 사랑이 인류와 인류의 창조주와의 분리를 연결시켰다. 다시 말해 인간의 영이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달은, 이로써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된, 인간 안으로 사랑이 육신을 입었고, 그러므로 순전히 겉으로는 인간이었지만,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었다. 원래의 관계가 이뤄졌고, 영이 자신을 깨달았고, 인류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충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게 한, 존재 안에 거했다. 인간의 몸과 하나가 된 신성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간격을 깨닫게 하려고 인간의 몸과 하나가 된 신성이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했고, 이제 마찬가지로 인간이 된 하느님의 심장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두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된 하나님의 영은 모든 지혜 안에 있어야만 하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야만 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이 땅의 사역은 사람의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고, 두 번째 존재가 역사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영원한 아버지의 영이 사람의 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설명 외에는 달릴 설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다. 단지 영원한 사랑과 하나에 속한다는 깨달음을 통해 아버지 영과의 분리를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실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아버지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뿔 수 없게 아버지의 영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하고, 모든 사람이 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세주와 같이 아버지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구세주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사람의 아들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단지 유일하게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달아야만 하고, 이를 깨달으면 아버지와 그를 분리시키는 장벽이 더 이상 없게 된다는 모범을 보여주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멘

삼위 일체.

B.D. No. 2056

1941년 9월 3일

하나님의 삼위 일체의 교리는 이미 신자들 사이에 가장 큰 분열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교리를 바로 잡지 않는 한, 즉 수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한, 이런 교리는 항상 문제가 될 것이다.

영적인 어두움이 이런 교리를 만들었다. 영적 어두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을 했고, 이는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기에 충분했다. 삼위일체에 대해 생각을 해본 사람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단호히 거부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교리는 무조건 받아드려야만 하게 되었던 신앙의 교리이고, 이런 신앙의 교리를 영접하도록 강제로 요구함으로써 거부하는 일을 막았다.

세가지 인격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교리이다. 하나님을 실체로 상상하는 일은 인간에게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실체는 사람에게 고정된 형체의 개념이고, 고정된 형체의 개념이 없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그는 고정된 형체에게 형상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합당한 일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진리를 벗어난 것이다. 삼위 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세우는 일은 단지 하나님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인간의 제한된 생각을 통해 영원한 신성에 대한 왜곡된 설명을 만들어 냈다. 하나님의 삼위 일체의 개념을, 단

지 믿음과 사랑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려는 의지를 통해,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설명할 수 있다.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한 사랑 안에 거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순전히 이성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일은 목표로 이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해 진리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영의 나라로부터 생각을 통해 가르침을 받기 때문이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알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믿음과 사랑은 또한 더 나아가 진리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진리에 합당하게,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들은 모든 일의 연관 관계와 초기의 역사와 목적 및 목표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깨닫게 된다. 그들은 모든 것을 통해 흐르는 힘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한, 끊임없이 활동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든 창조물과 이런 능력과의 연관 관계에 대해 알게 된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모든 지혜를 이해한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채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능력을 받고, 이로써 그는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면, 그는 이제 영원한 신성에 대한 비밀을 헤아려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이다. 이런 영적인 것이 이제 사람에게 흘러가면, 그는 다른 헤아릴 수 없는 영역으로 침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결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이성의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영원한 신성의 본질에 대한 신비가 신비로 남게 될 것이다.

삼위 일체의 교리는 이제 인간의 이성에 의해 해석되었고, 세개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교리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절대로 인격화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이를 통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

영원한 신성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다. 사랑은 모든 것의 생산자이다. 사랑은 우주의 아버지이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원초적인 힘이다. 모든 것이 사랑에서 생성되었고,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사랑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다. 사랑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성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모든 것을 생성시킨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원한 신성의 성품이다. 사랑과, 지혜와, 의지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하려는 의지가 형체를 입었다” 라는 말들은 “아버지, 아들, 성령” 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의지를 움직여서, 창조했기 때문

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이 지혜로써 육신을 입었다.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게 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이런 지혜를 이해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삼위 일체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나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받아드릴 수 없는 믿음의 교리를 어느정도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는가! 왜냐면 인격을 가진 신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모든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의 나라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 순수하게 세상적인 것을, 영의 존재들에게 적용하다. 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 "그들은 하나이다." 라는 추가된 문구가 있을 지라도, 오류에 빠지게 한다.

사람이 이에 관해 생각을 한다면, 사람은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해 생각하는 일을 금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명함을 주기 원한다.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 사람이 눈이 먼 가운데 길을 걷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자신에게 지식이 없고, 그들의 영적인 지식을 영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성의 생각과 이성적으로 세워진 가르침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진실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단지 영으로 헤아려볼 수 있다.

아멘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B.D. No. 4484

1948년 11월 11일

너희는 너희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세상적인 관계에서 삶이 너희가 이성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너희는 주저하지 않고 이런 강요에 순응한다. 너희가 접촉하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너희가 연구하고 고민하여 이성적으로 세상 지식을 증가시키는 일은 너희에게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자신이 동인이 되어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 이성을 적게 사용하거나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너희는 영적인 지식이 외부로부터 너희에게 실제 전해지게 하고, 너희 이성을 활용하지 않고, 전해진 것을 확인하거나 생각해보지 않고 받아들인다.

너희는 이성을 가지고 전해진 것을 점검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성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하여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한다. 왜냐면 너희가 받은 영적인 내용을 점검하지 않고 영접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이성을 준 분이 또한 너희가 이성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류 가운데 살고 있다. 왜냐면 그들이 분별해야 할 가르침에 대해 분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제공된 형태로는 가르침을 단순히 받아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인간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가르침으로 모든 점검하는 일을 거부하지만, 단지 너희의 이성으로 점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너희가 옳다. 그러나 가장 힘든 질문을 진리에 합당하게 해결하기 위해 영을 통한 깨우침을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요청해야만 하고, 하나님이 진지하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원을 절대로 보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항상 또 다시 거론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단지 이성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일이 가능하다. 사람이 자신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느낄수록, 그가 하나님께 지원을 구하는 일이 더욱 더 필요하다.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사람이 진리로 대변하기 원하는 내용에 대해 그 자신이 또한 전적으로 모두 깨달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영의 어두움 속으로 빛을 주는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 땅으로 전해진다. 진리를 거부하거나 가리는 곳은, 잘못된 가르침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진리로 대변하는 곳은 어둡다. 이 어두움을 빛으로 물리쳐야 한다. 진리가 거짓과 오류를 물리쳐야 하고, 사람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은 곳이 드러나야 한다. 왜냐면 진리가 단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이고, 진리가 단지 신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의 원수에 의해 혼란스럽게 되고, 사람들 가운데 영접을 받은 완전히 변개된 가르침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영접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성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제공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가르침을 점검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가르침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다시 말해 이 가르침은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이는 영원한 신성에 대한 설명이고, 모순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사람이 이 가르침을 받아드리면, 그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생각해서는 안 되거나 또는 사람이 그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는 이 가르침을 인정할 수 없다.

(1948년 11월 12일) 영원한 선성을 한정된 형체 안으로 끌어드리려는 일은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불완전하다는 증거이다. 모든 형체는 좁은 제한된 개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제한이 없다. 왜냐면 하나님의 본질은 어떤 아주 온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또한 최고로 온전한 존재는 나뉘어질 수 없다. 왜냐면 온전함은 영적인 상태이고, 영적인 존재는 절대로 셋으로 나뉘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의 인격을 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면 그런 개념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관점을 갖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세가지의 개념이 세분의 인격체가 영원한 신성으로 하나가 된다는, 즉 셋이서 하나의 하나님을 이룬다는 가정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반면에 사랑으로서 "아버지", 지혜로서 "아들", 힘으로서 "영"을 설명한다면, 이런 삼위일체 용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될 수 있고, 이는 또한 하나님이 삼위 일체라는 가르침의 근거로서 유일하게 올바른 설명이다. 그럴지라도 삼위일체를 잘못되게 해석함으로 인한 오해가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게 했다.

하나님의 본질의 부분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을 절대로 인격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개념에 따라 한 형체 안으로 집어넣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은 아주 강한 사랑의 의지에 의해 인도받고 사용되는 끝없이 총명한 빛과 힘이다. 빛은 하나님이다. 힘은 하나님이다. 사랑하려는 의지는 하나님이다.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가 없다. 모든 신적인 것이 삼위일체 안에 포함되어 있고, 모든 신적인 것에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존재에 내재되어 온전하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그러나 모든 신적인 것은 항상 하나의 존재이고 형체가 없는 어떤 무한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존재하기 위해 어떤 형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떤 형체가 소멸되지 않고 총명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미리 영화시키지 않았다면, 모든 형체는 파괴가 될 것이다.

그런 형체가 인간 예수이다. 인간 예수는 상상할 수 있는 신성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이로써 사람들이 최고로 온전한 존재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충만함으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최고로 온전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피조물들과 연관이 있는 하나님인 택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형체는 단지 세상적이고, 사람들이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 왜냐면 영은 볼 수 있게 되기 위해 형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셋의 분리된 존재는 비록 하나라는 언급을 하지만 오류로 인도한다. 왜냐면 사람들이 세 존재를 개별적으로 불러, 이로써 세 존재라는 의식을 강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모든 세상적인 영적인 위험 가운데 유일하게 도움을 청해야 할 한 하나님이라는 진리에 합당한 느낌을 잃게 하면서 분리시킬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든 충만함으로 영접하기 위해 이 땅에서 개인으로 삶을 산 예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음을 그의 승천이 증거하고 있다. 왜냐면 육체가 완전히 영화되어, 모든 입자들이 영원한 신성과 합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온전하게 존재하는 두 존재라고 할 수 없고 한 신성이다. (1948년 11월 12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최고로 온전한 상태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모든 무한을 채우고, 하나님의 의지가 정한 모든 일을 실행에 옮기는 하나님의 영은 단지 하나의 신성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표현되는 개념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이다. 아들의 지혜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온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기로 정한 모든 것을 채우는 힘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은 전능하고 아주 지혜가 있고 사랑이 충만하다. 이런 개념은 더 이해하기 쉽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삼위 일체 하나님의 문재를 해결하고,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 단지 이런 간단한 해결책을 파악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이 영적인 눈이 멀었고, 자신을 가르치도록 허용하지 않는 인도자들에 의해 잘못 인도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삼위 일체가 오류가 됨.

B.D. No. 5389

1952년 5월 11일

하나님의 삼위 일체가 세 인격체 안의 하나님으로 잘못되게 표현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 되었다. 그런 설명은 생각하는 사람이 받아드릴 수 없는 설명이다. 그러므로 생각 없이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당할 수 있다. 반면에 올바른 설명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면 그런 설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생명력이 있게 믿는 믿음을 갖도록 현저하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개념은 이미 사람들에게 너무 선명하지 못하게 되어 믿기가 어렵게 되었다. 게다가 신성을 세 인격체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 개념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근거가 있게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 왜냐면 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려면 이성을 완전히 제외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도록 이성을 주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진리에 합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진다면, 이성은 하나님의 지원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아주 잘 신성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가장 날카로운 이성적인 생각도 진리에 대항하도록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과 지혜와 힘이 그 안에 통합되어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낸다. 사랑이 원초적인 개념이고, 사랑에서 지혜가 나오고, 사랑과 지혜 둘이 하나가 되어 의지의 힘이 나타난다. 사랑은 창조적 원리이고 모든 것이 사랑에서 생성되었고, 사랑은 태어나게 하는 힘이다. 그러나 계획이 없이 또는 맘대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선하고 옳다고 깨닫는 일을 사랑이 의지가 실행하도록 재촉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실행에 옮긴다. 이런 일이 최고로 온전한 존재의 개념이다. 왜냐면 사랑과 지혜와 전능함이 더 이상 능가할 수 없는 온전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사랑과 지혜와 전능함은 거룩한 신성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신성의 본질에 대한 개념을 주지만 그러나 절대로 서로 다른 세 신적인 인격체가 한 존재 안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삼위 일체의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되게 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왜냐면 그런 설명은 본능적으로 거절을 불러 일으키고, 이로써 진지하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게 되었을 기도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목표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 위해 세 존재를 불러야만 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생각이었고,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는 사탄의 볼 수 있는 역사였다. 사탄은 항상 진리를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려고 시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받아드려 졌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빛이 없고 또한 분별력이 없고, 그러므로 사탄의 손에 좋은 도구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사탄은 이런 가르침을 전하고 그로 인해 잘못된 가르침이 단지 희귀하게 행한 방식으로 믿음을 위험에 빠뜨렸다. 하나님을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믿을 수 있게 되려면, 이 존재가 사람들이 자신의 온전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해야만 한다. 또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이성이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을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가르침에 대해 생각하고 입장을 정하기를 요구한다. 왜냐면 믿음이 내적인 확신이 되면 비로소 믿음이 생명력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이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드리도록 사람들에게 제시되는 곳에서는 단지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고, 오히려 혼에게 큰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개념이 왜곡시켜 축복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타오르지 않게 되면, 혼에게 더 특별한 해를 끼친다.

아멘

삼위일체의 문제.

B.D. No. 7117

1958년 5월 11일

전 적으로 잘못 된 설명으로 해결하기 아주 어려운 많은 문제들 중의 하나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단순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게 답을 주면 해명은 영접을 받지 못한다. 왜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 때문에 건드릴 수

없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이를 생각해보는 일을 사람들에게 금지한 개념을 통해 사람의 생각이 혼동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격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채우는 영으로 깨닫는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신성이 그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이해가 아버지 아들, 영이라는 개념을 이제 더 이상 잘못 생각하게 않게 한다. 왜냐면 이 개념에 자체가 사랑이요, 지혜요 능력이고 이 둘이 하나가 된 단지 한 존재 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러므로 창조자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고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들은 지혜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불길이고 불길로부터 빛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사랑과 지혜는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 게다가 사랑은 항상 단지 최고의 지혜를 나타내는 능력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계속해 사랑을 발산한다. 발산 된 사랑은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모든 존재들의 마지막 완성을 돕는다. 그러므로 항상 단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영을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는 한 존재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 존재가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 이제 신성으로부터 서로 달리 부를 수 있는 두번째 존재를 만들어 내는 일을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알아보지 않고 단순하게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을 단순히 영접하는 사람이 이 두 존재를 영으로써 하나로 말하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한다는 것으로 증명되고 그들이 대부분 하나님 자신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되고 세가지로 서로 다르게 부르는 일이 항상 단지 한 귀에 도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되고 영원한 신성이 분리될 수 없고 영원한 신성 자신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모든 것을 감싸고 채우고 있는 영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 된다.

아버지 아들, 영이라는 개념이 아직 깨어나지 못한 영을 가진 너희 사람들에게 너희 생각과 기도가 항상 아직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하게 한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 너희는 예수를 부른다. 너희는 영이 너희에게 오기를 구하며 영을 부른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에게 세가지 개념이 한 개념이 되었을 때 너희가 사랑으로써 아버지 지혜으로써 아들, 능력으로써 영을 하나가 된 한 존재를 부를 때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한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올바르게 기도할 것이다.

왜냐면 비록 삼위일체의 가르침이 이 세가지가 하나라는 부가설명이 된 상태로 가르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가르침은 사람들을 계속되는 잘못 된 관점으로 인도하는 큰 오류이다. 왜냐면 바로 예수 안의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 큰 능력이 있고 아직 잘못 된 생각 가운데 살고 있고 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너희가 이 능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진지한 생각이 너희와 너희의 깨달음에 큰 유익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적으로 자유를 주었는데 그러나 너희가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영적인 자유를 활용해야 한다. 하나님 자신이 진실로 너희의 생각이 선명해지게 너희를 도울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고 그는 빛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님을 부르는 일

B.D. No. 8674

1963년 11월 15일

너희 사람들은 자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게 그를 부른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너희에게 나타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단지 너희의 자유의지만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영은 내 일부분이다. 이 영은 아버지의 영과 떨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고 너희가 이 땅에 육신을 입을 때 너희 혼에 함께 넣어준 신적인 불씨이다. 너희는 한때 나로부터 사랑으로 발출되어 나온 나 자신과 같은 원래의 성분 가진 존재이다.

너희가 한때 나로부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분이 굳어지게 되었고 한때 내 사랑의 힘이 너희들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능력은 계속하여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생명 가운데 있던 너희는 죽은 존재가 되었다. 왜냐면 너희가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해 너희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임할 때 너희는 아직도 이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는 모든 사람의 심장에 즉 내 일부분인 내 영원한 사랑의 힘의 불씨를 채워 주었다. 너희 안에 한때 존재로써 발산되어 나온 능력이 혼으로써 거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적인 일을 행할 수 있고 인간으로써 너희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적인 과제는 너희를 영화 시키는 것이고 너희의 성품을 너희의 원래 상태로 다시 바꾸는 것이고 이것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 첫째로 너희 안의 사랑의 불씨에 다시 비추어 져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는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함으로 인해 전혀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의 불씨가 그러므로 나 자신의 비추임이고 너의 혼 안에 내 영이 비추어 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사람들의 의지로 비로소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너희의 모두는 자신 안에 나 자신의 일부분인 영을 소유하고 있다. 영이 너희에게 올 필요가 없고 영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사랑의 삶을 통해 영에게 기회를 줄 경우에 영은 비로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 왜냐면 영은 재촉을 하지 않고 너희의 의지와 반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언제든지 너희 안에 영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게 강요받지 않는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입소서” 하며 드리는 너희의 기도를 통해 너희는 올바른 연관 관계 대한 깨달음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더 나가서 너희가 잘못 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왜냐면 너희는 그를 인격화해서 존재로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 비추임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영원한 가장 거룩한 영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부르는 모든 영과 함께한다. 그러나 절대로 너희가 부르는 영과 나를 따로 생각할 수 없다.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는 너희의 부름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응할 수도 없다. 왜냐면 나로부터 나온 사랑의 힘에는 어떤 제한이 없을지라도 이 능력은 절대로 닫혀진 심장에 비추어 질 수 없고 사랑을 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 한 이 심장은 닫혀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서는 나에 의해 주어진 영의 불씨, 즉 사랑의 불씨로 인해 사랑을 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비록 너희가 그를 특별하게 부르지 않을지라도 사랑을 하려는 의지는 영이 너희 안에 계시를 주게 만든다. 영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사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동안에는 조용하게 거하고 있다. 왜냐면 그 자신도 사랑이어서 단지 사랑에게만 자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영원으로부터 아버지 영과 연합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 영, 또는 신적인 사랑의 불이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 인간 안에 흘러 들어 가서 영의 불씨에게 너희 안에서 너희를 쉬지 않고 가르치게 만들 수 있다. 왜냐면 신적인 사랑의 빛은 이제 너희 심장을 깨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에게 가장 밝은 깨달음을 주는 것이고 즉 너희가 진리에 합당한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다.

왜냐면 내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단지 순수한 진리만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항상 나 자신이 너희에게 임재하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해 너희에게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요구 된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영원한 사랑이 너희에게 임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내 계명을 성취시킬 능력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내 임재를 체험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사랑의 역사로 나를 너희에게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너희 안에 내 영을 통해 내가 약속한 것처럼 역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인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제자.

B.D. No. 5577

1953년 1월 14일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너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인간으로서 예수는 너희와 다르지 않았고, 그의 삶은 너희가 느끼는 것처럼 욕망에 맞서 싸우고 투쟁하는 삶이었고, 그는 이런 욕망을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억누르기를 원했다. 그의 삶은 그가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돕기를 원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삶이었고, 너희에게 나 자신을 모든 충만함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진지하다면, 너희 사람들도 그가 성취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의 혼은 실제 빛의 나라에서 왔다. 그러나 그가 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 전에는 그는 자신을 깨닫지 못했다. 그 안의 내 영이 때때로 그에게 말했고, 그러면 예수는 초자연적으로 지혜롭게 말했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내 영이 다시 숨으면, 예수는 자신을 너희와 같은 인간으로 느꼈고, 때때로 일어나는 더 밝은 그의 영의 상태가 그를 혼란스럽게 했고 두렵게 했다. 그는 단혀 있었지만 그러나 더욱 긴밀한 사랑으로 나에게 향했고, 이런 일이 그에게 그의 이 땅의 과제를 향한 빛을 주었다.

예수는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싸워야만 했고, 단지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체험해야만 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왜냐면 그가 너희를 앞서 너희가 또한 가야 하고, 그의 도움으로 갈 수 있는 길을 갔기 때문이다. 그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의 사랑의 삶으로 벌어드린 도움을 내가 내 사랑의 힘으로 그 자신에게 주었다. 이런 특별한 사랑의 힘의 공급이 그가 구속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했다.

너희 자신이 사랑을 행함으로 내 사랑의 힘을 얻기 원하면, 너희 사람들도 또한 특별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인간 예수 안에서 아주 강하게 성장한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러나 다시 그런 강한 의지는 단지 그가 자신 안에서 확장시킨 사랑의 결과이다. 그의 혼은 빛의 혼으로서 자신 주변의 큰 영적 위험을 느꼈고, 그러므로 그의 도우려는 의지가 아주 강했고, 인간 예수가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했다. 너희 사람들도 또한 너희 주변의 영적인 위험과 세상적인 위험을 보고, 너희가 돕기 원하면, 너희에게 힘이 제공될 것이다. 왜냐면 의지가 인정을 받기 때문이다. 너희도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 왜냐면 사랑을 행하는 모든 일이 너희에게 내 사랑의 힘을 줄 수 있게 하고 이로써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성취될 수 없는 일이면, 너희에게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일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인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았고, 그의 모든 신적인 성품들은 인간으로서 그가 얻은 것이고, 신성이 그에게 그의 길을 정해준 것이 아니고, 인간이 신성에게 순종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야만 한다. 인간 예수의 사랑이 내가 제한이 없게 사랑을 표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라. 왜냐면 내가 사랑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이고, 나 자신이 영원으로부터 사랑이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가 나 자신을 강요했고, 나 자신이 해야만 하고, 내 원래의 성품이 요구하는 일인 사랑이 힘이 역사하게 하는 일을 그가 행했다. 사랑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나 자신을 나타내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이런 강요는 나에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느낌을 준다. 나는 항상 내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 영원한 법에 따라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 존재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 사랑은 존재를 나와 연결시켜야만 한다. 그러면 존재가 내 영과 사랑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역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간 것이고, 이런 길이 나와 연합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멘

하나님과의 연합.

B.D. No. 1138

1939년 10월 15일

단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올바르게 산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을 마치게 된다. 왜냐하면 이런 연합은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연합이 가장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동등한 힘과 권세로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모든 존재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힘을 그들에게 다시 흘려줄 수 있고, 즉 창조하고, 창조한 존재들을 살아있게 하고, 활동하도록 자극해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는 아버지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고, 필요한 경우 모든 능력을 심장껏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로서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고, 그러므로 그가 힘이 필요하면, 그에게 모든 힘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 땅의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취하는 특정한 영적 성숙에 도달하는 일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유일하게 사람들이 이 목표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또한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필연적으로 높은 곳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아주 중요하다. 이 땅의 삶은 단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만 바쳐야 한다.

주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할 때, 이를 통해 그가 자신의 자녀들을 다시 얻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놀라운 것들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 그들이 제공한 것을 받아드릴 권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과제를 주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비할 데 없이 영광스러워, 단지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아버지와와의 연합은 자녀가 아버지를 닮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다시 말해 전적으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를 때, 자신을 전적으로 하늘의 아버지께 헌신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면 자녀도 이제 빛 안에 서게 되고, 자녀는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된다. 자녀는 원초적인 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 자녀는 더 이상 자신의 창조주 생산자와 분리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런 일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존재와의 연합을 이룬 일이고,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

아멘

기도 -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 중요한 과정.

B.D. No. 2129

1941년 10월 26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아는 사람은 단지 적다. 그러나 이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든 열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애를 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를 통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알고, 이 능력이 얼마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와 이와 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한번 깨달은 것이 그의 전 생애를 결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지를 알려줘도 전혀 감동을 받지 않고 머문다.

그들은 단지 세상적인 것만을 느끼고, 영적인 느낌에 동참할 수 없다.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 온 지혜들에 거부 반응을 함으로, 결과적으로 능력의 흐름을 체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부하는 곳에서는 능력의 흐름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접촉이 전혀 이루어 질 수 없게 되어, 사람의 혼에 상상할 수 없게 불리하게 된다. 왜냐하면 단지 영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혼이 높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기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항상 하나님과 영적인 연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가까이 다가 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능력과 은혜를 받는다. 이 능력과 은혜가 그를 거부할 수 없게 높은 곳으로 향하게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해 기도하다가,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위해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도 그 아래에 있는 권세로 깨달는다. 그는 모든 의지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더 이상 공개적으로나, 속으로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영으로 그를 채워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사람은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에게 지식이 전해지고, 그러므로 그는 빛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과 의식적으로 이룬 연합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 긴밀한 기도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긴밀한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자유의지의 결단을 나타내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긴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고, 그는 자신을 생성되게 한 분에게 다시 돌아 간다.

아멘

너희가 너희를 위해 다시 빛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 너희 죄를 위해 가장 쓰라린 고통과 죽음을 짊어진 내 끝없는 사랑을 마음에 새긴다면, 이런 속죄의 역사만으로도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긴밀함으로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끝없는 사랑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너희는 더 이상 이런 사랑을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내 대적자가 여전히 너희를 묶고 있고 그가 너희가 사랑을 행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완전히 무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너희가 단지 내 사랑의 작은 불씨를 너희 안에서 밝은 화염으로 자라게 하면 되는 내 사랑의 작은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너희의 자유의지가 요구되고 그러므로 나에게 의해 또는 내 대적자에 의해 강요받지 않는다.

이런 자유의지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 의지가 나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의지가 또한 대적자에게 완전히 굴복할 수 있다. 그러나 나를 향한 단지 작은 의지만으로도 이미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계속하여 너희를 향한 끝이 없는 내 사랑을 증명해주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대적자에게 대항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예수 안의 나 자신을 부를 때 너희의 의지는 강해질 것이다. 너희는 내 대적자로부터 벗어나고 빛을 추구하고 목적을 가지고 너희의 이 땅의 삶을 살게 되고 또한 나와 연합에 도달하는 마지막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너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너희는 먼저 너희를 창조한 권세를 믿어야 한다. 너희가 이런 권세를 인정하면, 너희가 쉽게 생각으로 이런 권세와 연결을 이루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믿음이 이미 이 전의 주인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너희 안의 모든 믿음을 흔들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자발적으로 나에게 향하고 나는 너희가 나에게 인도하는 올바른 길을 걸도록 도울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 너희에게 내가 그 안에서 사람이 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줄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해 설명해줄 것이다. 너희가 그를 알고 언제든지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가 나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이 땅의 인간이 된 이유인 너희의 죄를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고 나와 하나가 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는 아주 권세 있고 지혜롭고 사랑이 충만한 존재를 믿을 수 있게 된다. 너희가 이 존재가 지극히 온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존재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이 존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과 이 전의 타락한 죄로 인해 너희가 아직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존재가 너희를 다시 되찾기 원하고 너희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죄짐을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할 때 유일하게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너희의 사랑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이 유일하게 너희가 나에게 돌아가게 할 수 있고 빛의 나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유일하게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이 유일하게 너희가 가장 풍성하게 소유했었고 포기했던

모든 능력들을 돌려준다. 사랑이 유일하게 나와 너희 사이의 연결을 이룬다. 왜냐면 나 자신이 사랑인 것처럼 사랑이 너희의 원래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런 일은 이미 너희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갖게 한 불씨가 깨어난 것이고 이 불씨는 계속하여 더욱 타올라 마침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또한 너희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생각을 통해 나와 연결을 이루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너희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즉 올바른 생각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 전에는 너희에게 닫혀 있던 영역을 너희가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일은 내 사랑의 힘이 전달되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들여다 보는 일은 항상 너희가 어떤 사랑의 정도에 있는 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게 하라. 왜냐면 사랑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너희에게 선명한 생각을 주고 또한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할 힘을 주고 사랑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깨달으면, 너희도 또한 확실하게 온전하게 되는 길을 가게 되고 너희가 한때 자발적으로 떠났던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